버리고 비워 완성한 '不言의 미학'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⑩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는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사람으로,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17자로 된 짧은 시 하이쿠로 시문학에 혁명을 가져왔다. 일생을 방랑자로 살았으며,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생을 살다간 바쇼. 그는 하이쿠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 삶 자체가 그의 문학이다. 바쇼의 삶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작품 속에는 선적(禪的)인 직관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바쇼는 1644년 이가우에노에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9살에 사무라이 대장 도도 신시치로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요시타다로부터 하이카이를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요시타나는 25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요시타나의 죽음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그는 교토의 절에 머물며 불교에 심취했다. 그는 31살에 교토의 하이카이 종장 기타무라 기긴으로부터 하이쿠 작법의 비전서(秘傳書)를 전수받았다.

하이쿠는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자로 된 하이쿠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이다. 하이쿠는 5·7·5의 음률로 구성된 정형시이다.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표현하는데 하이쿠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하이쿠의 특징은 서술의 부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에서 말하는 불언(不言)의 언(言)과 상통한다. 바쇼의 하이쿠는 깨달음을 읊은 시라고도 할 수 있다.

바쇼 이전의 하이쿠는 예술성보다는 유희에 가까웠다. 그러나 바쇼는 하이쿠를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렸다. 바쇼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나의 풍아(하이쿠)는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와 같다. 일반 사람들의 취향과는 달라서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했던 바쇼는 30대 후반부터 은둔과 여행을 반복하며 오로지 하이쿠와 함께 인생을 보냈다.

은둔의 생활, 청빈의 생활

바쇼는 37살이 되던 해에 순탄한 인생을 버리고 에도의 후카가와(深川)로 이주했다. 바쇼는 에도의 대화재로 집이 불타고 살 곳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계기로 바쇼는 무소유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는 하이쿠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초막을 짓고 은둔생활을 했다.

제자인 리카가 오두막의 정원에 파초를 심었던 것에서 후카가와의 오두막을 바쇼암(芭蕉庵)이라 불렀다. 파초를 좋아한 그는 호를 바쇼(芭蕉)라고 바꾸었다. 그가 파초를 좋아한 이유는 '비바람에 쉬이 찢어지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다. 불교에서 파초는 유위법의 허망함과 환영(幻影)을 상징한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다간 바쇼의 삶은 수행자의 삶과 같았다. 다음은 그의 청빈한 살림살이를 엿보게 하는 시이다.

가진 것 하나/나의 생은 가벼운/조롱박

바쇼는 '나의 삶은 가벼운 조롱박에 비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운명이다' 라고 했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기에 가난하다는 생각조차 없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 가볍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의지할 곳은 언제나/ 잎사귀 하나/ 벌레의 노숙

바쇼는 한 마리의 벌레를 보면서 속세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초막을 짓고 사는



일본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에 있는 바쇼의 동상. 일본의 '시성(詩聖)'으로 추앙받는 바쇼는 일종의 유희였던 하이쿠를 '불언(不言)의 미학'이 담긴 예술로 승화시켰다.

'詩聖' 추앙된 日문학 대표 문인
5·7·5 음률 하이쿠, 예술로 승화
붓쵸 선사의 인연으로 참선 수행
은둔·방랑하며 禪美의 詩 창작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좋은 하이쿠를 쓰겠다고 속세를 떠나왔으니 바쇼에게 의지할 곳은 잎사귀 하나 즉 하이쿠 밖에 없다. 벌레의 노숙이나 자신의 누추한 삶이나 별다를 바가 없음을 말해준다.

붓쵸 스님과의 만남

바쇼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린센(臨川)암자가 있었다. 바쇼는 기분이 울적하거나 외로울 때면 이 암자를 찾아갔다. 3살 연상인 붓쵸 선사와 만난 것이 결정적인 인연이 되어 바쇼는 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린센암자에 바쇼가 '아침저녁으로 와서 참선 수행을 했다' 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가 사물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붓쵸 선사와의 만남 이후다.

어느 날 붓쵸 선사가 찾아와서 "오늘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바쇼가 "비 지나가며 푸른 이끼를 씻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붓쵸는 다시 "푸른 이끼가 아직 생겨나기 전, 봄비가 아직 내리기 전의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1700공안 중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을 떠올리게 하는 물음이다. 이에 바쇼는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라고 답했다. 여기서 나온 하이쿠가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다. 이와 함께 가장 선적(禪的)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을 하나 더 소개한다.

조용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소리

인적도 드문 청정하고 정적이 감도는 산사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 바위로 겹겹이 둘러싸인 한적한 산사에 매미의 울음소리만이 요란하다. 영원성을 가진 바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조용히 견고한 바위를 열고 들어간다는 사고의 전환이 돋보인다.

선시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은 오직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바쇼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소나무에게 배우고, 대나무의 일에 대해서는 대나무에게 배우면 된다' 라고 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느끼라는 것이다. 저마다 가진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바쇼의 안목은 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겨울날의 해/ 말 위에 얼어붙은/ 그림자 하나

방한복을 입었건만 살을 에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추위에 떨면서 말 위에 웅크리고 있는 이 육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위로하는 것 같다.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는 육신이지만 그것은 나의 진정한 본래 모습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으리라.

흰 이슬의/ 외로운 맛을/ 잊지 말라

흰 이슬은 덧없고 무상함을 뜻한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체의 유위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인생은 덧없고 무상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나팔꽃이여/ 너마저 나의 벗이/ 될 수 없구나

나팔꽃은 여름에 피는 꽃으로 가을이 되면 자취를 감추는 생명이 짧은 꽃이다. 나팔꽃도 생명이 짧고 나의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와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슬퍼한다. 바쇼는 요시다 겐코의 〈도연초〉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생명이 있는 것을 둘러보면 사람만큼 오래 사는 것도 없는 듯하다. 하루살이는 저녁을 넘기지 못하며, 여름에 우는 매미는 봄가을을 모르고 삶을 마감한다' 라고 했다. 목숨이 길면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도 많아지니 오래 살아 무엇 하겠느냐고 한다.

너무 울어/ 텅 비어 버렸는가/ 매미 허물은

여름 한 철을 살다 가는 매미는 울음으로 한 생을 보낸다. 매미는 짧은 생과 무상함의 표본이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매미의 허물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상징이다. 매미의 울음은 번뇌망상을 뜻할 수도 있다. 번뇌망상을 모두 비워버리고 난 그 자리에는 나와 너라는 생각도 주관과 객관도 사라지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 텅 빈 상태이다.

방랑자의 삶은 수행자의 삶

바쇼는 에도의 대화재로 덧없는 목숨을 절실히 깨닫고 '불타는 집'의 진리를 자각했다. 그는 평생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삼계가 불타고 있는데 안주 할 곳은 어디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이다.

41세에 시작된 방랑은 51세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바쇼는 발꿈치가 닳도록 돌아다닌 자신의 방랑을 행각이라 불렀다. 바쇼의 여행기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승려처럼 보이겠지만 승려이기보다는 속인에 가깝고 속인처럼 보이겠지만 삭발을 했다' 라는 구절이 있다. 그는 여행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변방 오지로 힘든 도보여행을 떠났다.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다음은 첫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긴 시이다.

들판의 해골 되리라/ 마음 먹으니/ 몸에 스미는 바람

그 당시의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기만 했다. 여행을 하다 죽어서 들판에 뒹구는 해골이 되어도 좋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이런 시를 남겼다.

어찌 되었든/ 죽지 않았다 눈 속/ 마른 억새꽃

생과 사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물처럼 바람처럼 세상을 떠다닌 바쇼. 바쇼가 느낀 허무 속에는 죽음이 깔려 있다. 죽음이라는 자각이 더 깊은 세계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언젠가는 죽을 운명임을 알기에 세속적인 삶에 이끌리지 않고 은둔과 방랑을 일삼았다.

제비붓꽃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행의 하나

바쇼는 여행이 곧 인생이라고 했다. 인생이 뭐 별 것 있나 꽃을 보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이지 라고 읊는 것 같다. 옛 선사들처럼 '도(道)라고 해서 특별한 것 없다.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잠 오면 자는 것이지' 라는 그런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

바쇼는 51세에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나고야를 거쳐 고향에 잠시 들렀다가 교토를 여행한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오한과 두통으로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쳤다. 바쇼는 쓰러지기 전에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서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시들은 선사들의 열반송과도 같다.

가을 깊은데/ 이웃은 무얼/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이는 이 작품으로 바쇼는 시성(詩聖)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깊은 가을, 병으로 쓰러졌지만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인간적 온기가 느껴진다. 은둔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민의 정을 품고 있는 바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음을 깊이 체득한 노래가 아닐까 싶다.

방랑에 병들어/ 꿈은 시든 들판을/ 헤매고 돈다

이 작품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읊은 시이다. 선사들의 열반송과도 같다. 늦가을의 들판은 성장을 멈추고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어 추레한 빛이다. 저만치 달려가는 가을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생을 들여다본다. 하이쿠에 전 인생을 걸고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한바탕 꿈처럼 느껴진다. 고독과 은둔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줄기 회한은 왜 없겠는가? 죽음 앞에서도 하이쿠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저먼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의 삶으로 남아있다. 매일 매일이 여행이요, 시간 속을 걷는 나그네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낀 바쇼의 감성이 느껴진다.



방랑미학의 실천자로 그는 속세를 떠나 하이쿠의 예술세계를 완성했다.

문윤정(수필가 · 여행작가)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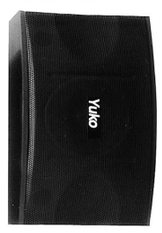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4일까지
◆ 개 강 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